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18호 [주제 제25727호] 주제 106 (2017)년 8월 6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신

## 김정은 각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저희들은 2017년 7월 28일 카파라에서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관한 우간다주체 사상전국토론회를 가지았습니다.

이 기회에 토론회참가자를과 전체 우간다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은 당시에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전국토론회는 조선이 가중되는 미제국주의의 제재와 압박을 물리치고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며 인민들의 경제생활향상을 위한 우정에 편안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반한 자주 정치를 펼치시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루며 우상으로서 자력사강의 전리를 세계 앞에 보여주시던 당신의 현명한 행도를 높이 칭송합니다.

오늘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저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각하와 함께 한 힘으로 당장군께서 강국건설위업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그길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려세대에 더욱 길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세계정치무대에서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보다 꼬고히 하시었으며 주체조선의 위력을 높이 폐지시켰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자기의 영향력과 지배권을 확장하려는 혈강들의 백동으로 대립과 모순이 격화되고있는 현상에서는 자주의 가치를 높이 불고나갔음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나라들은 풍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라들은 자주의 원칙에서 단절되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분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활동을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의 자주위업 만세!

주체사상 만세!

##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관한 우간다주체사상전국토론회 참가자일동

2017년 7월 28일

##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관한 우간다주체사상전국토론회 진행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관한 우간다주체사상전국토론회는 7월 28일 우간다의 카파라에서 진행되었다.

트로 피장정연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태양광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기울여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기울여 하는 고전적으로 활동을 날로 부강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창보습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토론회장에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에는 우간다의 정부, 단체, 기관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회원들과 군중이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원수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꽂바구니를 칭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토론회에서는 축하연설에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회 회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조선혁명과 단체 자주위업수행에 나서는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리자면 아프리카인민들이 자체개생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벽사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워야 한다.

힘이 없으면 제국주의자들의 통로로 되는 것은 물론 인민의 운명을 저칠 수도, 목숨을 수호할 수도 없다.

조선의 선군정치야말로 아프리카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정지방식이다.

대통령부 애국주의 항공국 무부장 마고무 무마파는 조선이 애발로 주체사상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민족을 무장시키고 사회의 단합을 실현한 가정명적인 나라이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도 모든 아프리카나라들은 꽃바구니를 칭정하고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토론회에서는 축하연설에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위원회 회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아프리카카운트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아프리카카운트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아프리카카운트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아프리카카운트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아프리카카운트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아프리카카운트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아프리카카운트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파악적인 사상으로 꼽히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존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맡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실천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연구 위원회 위원장 마리암과 로마리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존경과 우상으로서의 존경을 표명하였다.

인민TV방송, 도이췰란드언론연단 인터넷TV에서 「현지지도 소식」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아제피아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육소조선 천연협회, 나아제피아에 본부를 둔

본사기자

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아프리카카운트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헨리 마리코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리카의 통일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반제반정의 전초선에 서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지지와 편성성을 보내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는 것을 목격하였다.

주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15)

# 자력독립의 가치아래 온 강토에 타오른 전민항쟁의 불길

참관자들과 함께 15호실에 들어선 우리의 눈에 먼저 안겨든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문헌이었다.

무성한 일색을 펼친 나무들을 배경으로 머지 않아 다가온 조국해방의 그날을 그려보시는 듯 확신에 넘쳐 쳐서 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역사적인 사건문헌에서 더욱 눈길을 빼놓지 않는 우리에게 강사는 소부내 활동시키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면서 이 방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병도민에 일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한 전민항쟁준비사업에 적극 주진원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다며 말하였다.

15호실에 대한 강의에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한 강사는 벽면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표시를 읽어내려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시하시였다.

『최후결전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전민항쟁을 위한 작전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벽면에는 조국해방 3대로선이라는 제목下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 전민적봉기, 배후련 활동으로는 글같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었다.

강사는 그릴에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참관자들에게 역사적인 두무봉회의 기진행된 곳이라고 알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제 32(1943)년 2월 신흥군 서쪽의 두무봉길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 전민적봉기, 배후련 활동으로는 글같이 뚜렷이 부각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문제들 중의 하나가 전민항쟁준비사업이었고 그를 위하여 소부내, 소조 및 혁명조직책임자의를 소집하고 조국해방 3대로선과 그 일원을 위한 전민항쟁준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참관자들의 눈길은 점증시키는 미술작품이 있었다.

부산과 시로노세끼를 오가는 관부



속에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정치공작원을 형상한 미술작품, 인민들 속에서 행 일의 전설적인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양한 흥보와 철학적인 신비의 정이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는 데 당황모자에게 비명을 울린 일제의 『죽고월보』자료를 비롯하여 일본에 파견된 정치공작원의 활동에 대한 민족자주...»

그중에서도 참관자들의 눈길은 점증시키는 미술작품이 있었다.

부산과 시로노세끼를 오가는 관부

를 들으며 우리는 다음벽면으로 걸음을 옮겼다.

민심은 헌싘이다. 민심에는 인민들의 지향과 소망이 담겨져 있으며 민심만 준비되면 그 어떤 대사든지 다룰 수 있다면 우리 수령님의 확고한 신호였다.

이러한 확신에 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중심으로 보시고 전민항쟁준비가 본격적으로 다가온다면 전민투쟁을 최후결전에 펼쳐주시고 전민족을 향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은 후날 조선에 전공하는

경우에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 『민족조』라고 부르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들을 조직하였다. 『…일본군의 혼란기에는 민족운동을 펼쳐 전민족을 향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은 후날 조선에 전공하는

경우에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 『민족조』라고 부르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들을 조직하였다. 『…일본군의 혼란기에는 민족운동을 펼쳐 전민족을 향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은 후날 조선에 전공하는

경우에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 『민족조』라고 부르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들을 조직하였다. 『…일본군의 혼란기에는 민족운동을 펼쳐 전민족을 향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은 후날 조선에 전공하는

경우에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 『민족조』라고 부르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들을 조직하였다. 『…일본군의 혼란기에는 민족운동을 펼쳐 전민족을 향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은 후날 조선에 전공하는

경우에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 『민족조』라고 부르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들을 조직하였다. 『…일본군의 혼란기에는 민족운동을 펼쳐 전민족을 향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은 후날 조선에 전공하는

경우에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 『민족조』라고 부르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들을 조직하였다. 『…일본군의 혼란기에는 민족운동을 펼쳐 전민족을 향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시였다.

…김일성은 후날 조선에 전공하는

경우에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로 『민족조』라고 부르는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들을 조직하였다. 『…일본군의 혼란기에는 민족운동을 펼쳐 전민족을 향한 희망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시였다.

『당전준비 완성』이라는 글같이 부각된 벽면에서도 눈에 확 안겨드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미술 작품이었다.

주제 32(1943)년 2월 역사군 우적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열린 전국당조직 책임자 및 당적실성원회의 장면을 재현하고 있었다.

전민항쟁련령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업과 땅도 들을 세지 아니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열정념체 모습, 귀중한 가르침을 한자라도 놓칠 세라 적어나가는 회의 참가자들, 그이를 우러르며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결전의 선봉에서 싸워나갈 맘만한 무지와 훈승의 신심에 넘쳐있는 두사람...

회의 참가자들의 기백 그대로인듯 활기찬 강사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리었다.

『청진체육소(당시)에 당분회가 나온 것을 비롯하여 청진지구에 당조직들이 확대되고 청진지구당위원회 조직들이 전국당조직회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시원 차료들을 짊어져 가며 하는 강사의 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령에 기증한 병도에 의하여 국내의 모든 지역에 기증당조직들이 학대 강화되었고 정연한 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되었으며 당조직들의 전국적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졌음을 참관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조선사람이 품고 있는 곳이라면 바다건너 일제식민지통치의 아성이고 심장부인 일본본토에 까지 침략의 폭력을 펼쳤던 사내들이 도처에 푸려진데 대하여 용변주는 자료들...

## 혁명가의 삶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적인 삶을 꿈까지 고수하는 것은 참다운 혁명가들의 고유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며 혁명가의 삶의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강도 일제와 맞서 싸우는 어려운 조건에서 서로 협력승리에 대한 드넓은 신념으로 글활없이 싸울 수 있은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이런 귀중한 철학이 빼어난다.

『김일성-민족의 대양-조선의 대양』의 구제성, 『독립조선평수』, 『김일성-반민이 일상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김일성-평생은 조선민족 고종고도자 모두 만족하여 일정한 차지』와 같은 글들이 있다.

제29(1940)년 가을 우리 혁명 앞에 조성된 정세는 활으로 힘을 더하고 고수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혁명신념을 굳건히 간직한 사람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니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9(1940)년 가을 우리 혁명 앞에 조성된 정세는 활으로 힘을 더하고 고수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조선의 혁명가들이 혁명신념과 의지를 변함없이 간직하고 굽임없이 세우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도시고 행군을

다그치던 부대는 사방대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 사방이 잘 보이기 때문에 사방대라고 산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곳이 있다.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삶이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풍물의 생활과 다른 면으로, 시기별로, 시기별로 각각의 삶을 살피면서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민들은 부단히 새로운 대국민운동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맞춰 전민항쟁준비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나라뿐 아니라 일본땅에서도 일어난 것을 기록한 일제의 관부

들은 그들이 품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쳐 푸성하는 일이다.

우리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나라뿐 아니라 일본땅에서도 일어난 것을 기록한 일제의 관부

들은 그들이 품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쳐 푸성하는 일이다.

우리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나라뿐 아니라 일본땅에서도 일어난 것을 기록한 일제의 관부

들은 그들이 품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쳐 푸성하는 일이다.

우리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나라뿐 아니라 일본땅에서도 일어난 것을 기록한 일제의 관부

들은 그들이 품고 있는 저마다의 삶의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류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몸바쳐 푸성하는 일이다.

우리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나라뿐 아니라 일본땅에서도 일어난 것을 기록한 일제의 관부

#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본때로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에 박차를!

## 당의 린업정책관철에서 발휘된 훌륭한 일본새

홍원경 목생산사업소 일군들 사업에

최근년간 통나루와 통발나루 생산에서 전례없는 실적이 이룩되도록 전투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홍원경목생산사업소 일군들은 사업에 주목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들고 뛰고 또 뛰며 남은 사고방식과 둘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품질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운의 진격으로 일어나가는 불길속에 난간계획을 큰너털이로 모인 자리에서 절절하게 말했다.

『생산계획도 수행하지 못하고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발전장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우

리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책임지는 량장에서 서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때 사업소에서는 모든 생산

생산력을 풍동원한 경과 난간 인

민경제계획을 수행하였다. 하

나지배인은 기쁨보다 자책이 앞서

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사업소일

군들과 종업원들은 피터치 노력

한데 비해 생산실적이 웅등한 높

이에 울리어서 못했으며 다음에

의 계획수행면도 어두웠다.

그는 사업소의 지배인으로 내

세워준 당의 심입과 기대에 옥

망 하나님께 기하고 일해온 한해

사업을 성실히 향기로운 향기를

나누어주기 위해 일해온 한해

을 향기로운 향기를 향기로운 향



# 세 개의 금메달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내부군관발명가의

발명은 한마디로 말하여 실천에서 세기되는 기술적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안, 새롭게 해결한 기술이다. 그 과학적원리가 본래적으로 출명되면 더욱 좋지만 반드시 그 근거를 해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과학적이라는 어려운간에 시험적사실이나 원리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발명이다.

흔히 사람들은 발명이라고 하면 기발한 창작을 내놓을 때마다 그의 명석한 두뇌에 대하여 먼저 생각할 것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 15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조선인민내부군관군은 서명혁동무를 알게 되었을 때 우에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 아래에 그 그들이라고 2014년과 2015년에 전행된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들에 이어 이번 전람회에서 차지 헌전제로 금메달을 받은 서명혁동무는 일인과학자이며 우리 나라 수리봉과학의 유망한 원사 교수 박사인 험우리동대학 서명혁동무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군관발명가가 받은 세계의 금메달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말해 주었다.

위 대 한 병 도 자 김 정 일 동 지 쇄 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향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서명혁동무는 시

온것은 제 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였다. 그는 이 전람회에 겨울철의 불리한 자연기후 조건과 환경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더 밟고 정중히 보시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암흑공기의 위한 눈치 단악형성기와 관련한 제안을 내용았다.

사업조선인민내부군관

관으로 부터하고 있는 서명혁동무가 자기 사업분야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주시면서도 그는 가족들과 함께 만수대 앞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을 찾았다. 만수대 데려온 후에도 학습하는 일정을 밟고 있었었다. 투심하게 맞은 그는 헌전제로 금메달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와 믿았을 때 서명혁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환경 생

맞으신 친환경과 생각났습니다.

이제라도 수령님의 어깨위에 내 려놓이는 웃음을 떠나 드리고 내려놓는 눈비를 다 막아드릴수는 없을가 하는 생각이 풀려있었습니다.』

군관발명가로서의 그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지 만 스스로 나선 일정장성의 길을 걸고 턱지 않았다. 중요한 학교를 걸로 그를 떠나온 눈이 내려

간도 모자랐고 애로와 난관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출장지에서도 집에서도 괴롭고 있으면서 사색하고 함께 일하는 전우들의 방조를 받으며 시험도 해나갔다. 누가 알아주진 말건 어려운 통찰이나 고집으로 탐구의 길을 풋풋이 이어나가는 그에게는 마음속으로 늘 되새겨보는 것이 있었다. 말일에 국립사인 의뢰하여 내루군관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영한 내루군관발명가를 찾아왔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암흑공기를 허용하는 눈차단형성기를 혁신하였다. 이 설비로 단위시간당 최대로 기록한 많은 양의 눈동이 날려보낼 수 있는 어려운 대안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통상을 찾았다. 만수대 데려온 후에도 학습하는 일정을 밟고 있었었다. 투심하게 맞은 그는 헌전제로 금메달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와 믿았을 때 서명혁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환경 생

맞으신 친환경과 생각났습니다.

이제라도 수령님의 어깨위에 내 려놓이는 웃음을 떠나 드리고 내려놓는 눈비를 다 막아드릴수는 없을가 하는 생각이 풀려있었습니다.』

서명혁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다음에는 열린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과 조선혁방일 축하

축제에 열린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대회로 불러주시는 그나쁜 은정을 배풀어주시었다.

열렬한 국죽증정의 마음과 퍼

라는 노력으로 쌓은 높은 과학

기술성과, 불가능한 일정과 일정을

맞추어 일정을 밟아온 그에게는 시

경에 하는 최고 명 도 자 김 정 은 풍자 쇄 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체육기자재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질 좋은 체육기자재를 생산하여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넓리 리용하게 하여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인민들속에서 『대

성산』 체육기자재에 대한 호

평이 대단하다. 공장이 현대적

으로 일상화되고 물과 물과

1년 날이 되었는데 제품들의

가지수도 늘어나고 절도 현저히

높아졌다.

그 비결을 알고 싶어 우리는

총동원의 오랜 소나무들을

보다 더 귀중한 나라이의 재부라

고 하시며 한 그루도 죽지 않게

철저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렇듯 따사로운 손길에 총

도원의 출산은 오늘도 빛을 뿐

많이 싫어 사시정월 주둔 소

나무들이 살피에게 만들어야

한다고 철저히 교시하시었으

며 전후에도 총도원의 출산이 영

원히 아름답게 살피에게 대

하고 험악한 환경에 대처

하였다.

앞으로도 총도원의 출산은

질세워인들로 손고한 뜻을 대

이어 밀내어 가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애국의 마음에 떠날을

떠나지 않았다.

민족애를 높여나가는 그에게는 시

경에 하는 최고 명 도 자

김 정 은 풍자 쇄 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작품과 임의기구

공장을 현대화하고 훈련

높은 임직원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임용용소모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하여 하겠습니다.』

기계적과 파워생용품에는

치수, 치과용품과 회화적

기기로 예상되며 철저히

제작품과 임의기구를

제작하는 철저한 철학으로

